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오늘 '99 흥해작전 승전감사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 '99 흥해작전의 승전보고가 있게 된다.

'99 흥해작전은 6일(주일) 저녁 발대식으로부터 출발하여 26일(토) 새벽을 기해 작전이 종료됐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표어를 걸고 새벽마다 찾아 나온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달려나온 성도들은 교회에 도착하면 먼저 본당 입구에서 대학·청년부 회원들의 안내와 피택 장로와 피택 집사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을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새 예배당 건축, 비전2020운동을 통한 민족복음화, 기독교교도소 설립, 탈북자 보호를 위한 UN청원운동, 목회자세미나를 통한 한국 교회의 갱신, 농어촌 100교회 운동과 서울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 등 7대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했다. 또한 개인과 가정의 흥해도 믿음으로 건너게 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다.

한편 성도들은 3대 행동강령 대로 신행일치의 균형잡힌 삶을 살며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



임 감당할 것과 그리스도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사랑하기를 다짐하기도 했다.

새벽마다 주력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졌고 강사인 이종윤 목사는 산상보훈강해를 통해 이번 흥해작전의 주제와 표어에 따른 메시지를 선포했다.

연일 예배실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중보기도카드를 활용하여 기도의 진보를 꾀하는 한편 새벽기도회 후 3층 중보기도실을 찾아 당

회원들과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며 합심기도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마지막 날인 26일(토)에는 옥탑층에서 떡간치를 통해 승전을 감사하며 교구별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흥해작전 참모본부에서는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기 위해 이번 흥해작전의 이모저모를 담은 60여 장의 사진을 1층부터 4층까지 계단 옆에 전시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오늘 I·II·III부 예배 시 건축헌금

우리 교회는 흥해작전 중 드린 기도가 상달된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I·II·III부 예배 시 건축헌금을 드린다.

이번 건축헌금의 목표액은 45억원이다.

성도들은 건축 경비를 평당 300만원으로 추산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헌금할 수 있다.

또 헌금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 당회에서는 이번에 작성하는 건축헌금은 가급적 2년 이내로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을 완성할 때까지 십일조 헌금과 같이 건축을 위한 십일조 헌금을 별도로 드리거나 특별한 물품으로 드리는 방법도 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 - 성찬식 거행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7월 4일)을 '99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 낮 I·II·III부 예배 시에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맥추감사헌금을 드린다.

교회학교에서는 부서별로 집회시간에 다채로운 축하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저녁 찬양예배시간에는 유아·유치·유년·초등부 어린이들이 준비한 감사절 축하행사를 갖는다.

맥추감사절은?

맥추절(출23:16)은 유월절(레23:5-8), 초막절(레23:34-44)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 하나이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로도 불리우는 이날은 무교절,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성회로 공포하고 밀과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들고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날로 삼았다.

맥추감사절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고, 특별히 1999년도 6개월 동안 우리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복을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사야 강해

지상의 일반적 심판

이사야 24장 1-12절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 강해를 통하여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말씀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1.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2절 “~같은 것이며”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심판은 힘있는 사람의 편에 설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인간의 역사는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최소한 삼 백년이 지나야 정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달라져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힘있는 사람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2.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계층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층의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5절). 이 세 가지 죄로 인하여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율례를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남용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또 한가지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항상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서를 쓸 때에 희생제물을 잘라 두 줄로 놓고 그 사이를 언약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희생제물과 같이 들로 쫓겨어 죽이는 것이 구약의 언약법이었습니다. 인간 사이의 언약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인간들이 파괴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므로 하나님의 심

판대 아래 서게 된 것입니다.

3.불순종이 가져올 재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3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1)땅이 황폐해진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홀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사 24:1-12)



이종운 목사

하나님의 심판은 제일 먼저 땅을 저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1절). 하나님을 대적하던 소련은 지금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고 북한은 기쁨과 흥수로 인해서 땅에서 곡식이 나지를 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인간에게 임하기 전에 땅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2)인간이 타락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고차원적이 목적으로 인간에게 땅을 주셨습니다만 인간은 열등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땅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서 빈 도시가 되어 부끄러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3절). 땅은 그 곳에 살던 사람들 때문에 더럽힘을 받습니다(5절). 결국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기는 하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모두 망했기 때문에 침묵 중에 마시게 되며(9절), 나중에는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까지도 없으니 더욱 침울해져서 기쁨이 완전히 소멸되게 되었습니다(11절).

(3)쇠약해지고 쇠잔해진다

도시의 위력은 간 곳이 없고 땅이 메말라 산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4절). 뿐만 아니라 성읍이 황무하고(10절), 성을 보호하는 성문이 파괴되어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4)처참한 비극이 온다

이들에게는 기쁨을 가져다주던 것이 다 사라지고 매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9절). 포

도주는 없고 독주를 마시게 되니 이는 자기 학대하게 될 뿐입니다.

(5)천재 지변이 임한다

여기서 땅은 의인화 된 것으로 저주가 인간을 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6절).

이와 같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난이 임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적이어서 먼저 땅이 황무지가 되고(3절), 성읍이 파괴되며(10절),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6절) 마침내 사망에 흠어져 공허함과 비극이 넘치게 됩니다(7-12절). 하나님은 인간을 억울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징조를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경고를 하시다가 결국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계급에 임하지만(2절), 특별히 교만한 자가 당하는 고통은 더욱 심합니다(4절). 죄를 범한 사람은 한 가지 재난을 피해도 다른 재난이 계속 됩니다(18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매신이 성행하고(16절),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같이 파멸하며(17절), 기초가 진동하고(18절), 비틀거리다가(20절), 갈라진 후에(21절) 마지막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22절).

우리는 심판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면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14절).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날 금면투관을 받으며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홍해작전 승전보고●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99 홍해작전 참모본부

새벽이 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밤마다 소쩍새는 그리도 슬피 울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왔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낮아짐이 20일을 채우게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외치고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고요한 새벽은 흔들렸고 진동했으며 모든 성도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 하늘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케 했습니다.

6월 6일 홍해작전 발대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행해진 홍해작전은 은혜로운 찬송, 일곱가지 기도제목에 대한 통성기도,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이종운 목사님의 산상수훈 메시지로 이어졌습니다. 새벽을 가르며 구름떼처럼 몰려 나온 성도들은 3대 행동강령을 감당할 뜻을 품고 전심으로 예배에 동참했으며 이곳 저곳에서 은혜받는 성도들의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불편한 몸을 무릎쓰고 보조의료기구에 의

지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나온 성도, 아들 딸 손목을 꼭 잡고 교회문을 들어서는 부모님의 믿음에서 천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80노구를 이끌고 미소하며 참석하시는 권사님의 악착 같음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며 겸손히 고개 숙이는 성도들의 가난한 심령에서 오병이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 회원들의 아름다운 봉사는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고 하늘나라에 기록될 내용입니다.

가깝고 먼 거리에 상관없이 비싼 교통비를 내면서 달려 나온 서울교회 성도들, 이를 보신 하나님은 놀라셨고 기뻐하셨고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홍해작전을 통해 얻은 승리는 너무나 풍성하고 완전하고 만족합니다. 경건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이 건축될 것을 확인받았고 비전2020운동을 통한 민족 75%의 그리

스도께 돌아오는 운동이 강하게 점화되었으며 기독교교도소 설립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믿게 하셨으며 탈북자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의 불화가 전국 교회를 뒤덮게 하도록 우리가 사용받았습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한 교회 갱신운동은 유명세를 내게 되었고 농어촌 100교회운동이 활력을 잃은 농어촌에 생기를 불어 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교회 성도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부자가 되었고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다짐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번 홍해작전은 성도들의 승리, 서울교회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래서 홍해작전 시작 전부터 우리는 이 작전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 온 정성을 쏟아 주신 모든 참모들에게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20일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종운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홍해작전 승전보고를 드림으로 20일 간의 대장정이 완료된 것을 알리면서 승전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홍해작전 참가기 1●

광주군 오폐면에서 왔습니다

정현숙(집사, 제 10교구)

이스라엘 민족이 무섭게 넘실대는 홍해바다에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졌듯이 홍해작전에 돌입하라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새벽을 달릴 때 이미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산상보훈의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셨고 새벽마다 쏟아지는 산상보훈의 팔복은 생명수가 되어 우리 위에 흘러 차고 넘쳐서 감격과 흥분으로 주체할 수가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선포된 말씀 중에 “나를 죽이려”는 것과 “옛 사람은 없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사시며 이제 주님과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너무도 크고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수없이 들던 말씀이건만 새삼스럽고 끝보다 더 달디 달아서 우리 위에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새벽을 달릴 때 음흉스럽게 버티고 있는 감시 카메라가 걸림돌이 될 뻔 했고 떨다는 핑계로 나를 위한 편안함으로 인주하려 했던 어리석은 생각이 얼마나 위험천만이었는지 아절합니다.

홍해작전 기간 내내 마치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지는 대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그 거센 물살을 벽으로 세우셨듯이 우리 몸의 더러운 질병과 잡다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벽으로 만드셨으며 찬송을 부르며 진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선 일곱가지 기도제목을 주시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으며 주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다 들어 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진군은 지칠 줄 몰랐고 이미 우리는 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승전가를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봅니다. 주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도중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또 유혹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언제 엄습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푸념의 씨앗을 심지 않도록 말씀

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4:13).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며 주의 은사를 따라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승전가를 목이 터져라 높이 부르겠습니다.

●홍해작전 참가기 2●

자명종이 미워도

조현정(고등부)

“올해는 꼭 나에게 주어진 홍해를 건너리라” 다짐하고 첫 날부터 홍해작전에 참가했다. 하지만 고3인 나로서는 잠도 많고 입시공부도 짊어지고 매일 새벽 기상하기란 엄두도 못낼만큼 불가능 자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하루를 채워갔으나 도중 하차의 유혹과 시련이 계속 따라다녔다. 갈수록 마음이 약해졌고 새벽 4시를 알리는 자명종 시계가 미웠으며 “현정아, 늦었다. 빨리 일어나라” 하시는 엄마의 음성엔 친엄마의 음성같지 않았다. <4면에 계속>

탈북자를 위한 UN청원 서명운동에 이웃과 함께 참여합시다!

.....북한을 탈출하여 해매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있을 곳도 없는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탈북동포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과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촌을 설립할 것을 UN에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에 주위 이웃과 함께 적극 참여합시다.

▼ 팀별 서명수취인 수

팀	서명수취인수	팀	서명수취인수
1교구	10,568명	10교구	120명
2교구	55명	11교구	4,930명
3교구	146명	12교구	250명
4교구	1,650명	초등부	30명
5교구	3,480명	중등부	700명
6교구	1,002명	고등부	86명
7교구	30명	대학·청년부	12,088명
8교구	3,081명	기 타	31,686명
9교구	60명	총 계	60,452명

* 위 도표에 제시된 통계에는 서명수취인이 불분명하여 '기타'로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을 요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주일에 교회 정문 앞에 마련된 서명운동 본부에 말씀해 주십시오.

▼ 서명수취 우수 개인 명단

- 5,000명 이상: 박순봉 권사
- 3,000명 이상: 김선미 권사
- 2,000명 이상: 이수자 권사, 홍성주 집사
- 1,000명 이상: 전기섭 장로, 이민화 권사 최형열 집사

* 6월 20일 현재 서울교회 서명운동본부 서명수취 목표(8월까지 20만 명)의 약 30%에 도달했습니다.

* 서명지 제출은 반드시 서명운동본부에 하셔서 창구를 일원화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고등부 학생 중 7월 4일까지 3장의 서명지를 제출하는 학생에게는 기념 티셔츠를 드립니다.

교역자수련회

교역자수련회가 1일(목) - 2일(금) 이틀간 개최된다. 하반기를 시작하고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이번 수련회는 우리 교회 목회 전반에 대해 검토·확인을 하고 특별히 새로 부임한 교역자 오리엔테이션을 겸하게 될 예정이다.

6월 학습·세례식

6월 학습·세례식이 30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학습·세례자 교육에 미참하신 성도는 28일(월)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습·세례자 문답은 29일(화)에 있다. 문의는 새가족부.

■ 동정 ■

- * 김병호 집사·김현주 성도 가정(6교구 부친다라방)은 20일(주일) 득남했다.
- * 이번 주 식사는 승영강 권사·장효욱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고등부는 28일(월) 새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이사 ■

- * 정빈모 집사·김인정 권사, 분당구 야탑동 선경아파트로 ☎ 0342 - 707 - 2449.
- * 조연숙 집사, 대전으로 ☎ 042 - 531 - 0461.

〈3면에서 계속〉

허지만 교회로 발길을 옮기면 나보다 훨씬 먼저 교회에 오셔서 인사하며 인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잠에서 구하옵소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를 악에서 구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었으며 설교 시간에 가끔은 졸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어여뻐 여기시리라 믿었다.

이번 홍해작전 기도 중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세상에 몰들어 있고 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기도를 20일 간 하게 되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중보기도 카드에 내 주위의 믿지 않는 친구 이름을 적어 놓고 친한 친척, 가족 등 20명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

하는 즐거움이 설명으로는 부족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신자가 된 것이다.

홍해작전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다시 뵈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내 삶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나 중심적인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해 보았다.

학생이기 때문에 너무도 피곤하고 힘든 기간이었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진실한 자녀가 될 것을 다짐하며 '99 홍해작전의 마침표를 찍어본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 오늘 찬양예배시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 초청된 새가족*

송경지 한문희 이승은 유생용 이은자 구민영 배유리 오유록 강현모 배석훈 황유석 임정길 차병례 이주영 최진상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홍해작전의 7대 기도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 탈북자 보호를 위한 UN난민청원운동을 위해
3. 비전2020운동을 통해 민족복음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